



양계 안테나

김 용 화
(본지 편집장)

연말 소비추이, 가격이 바뀐다 가정소비 증가, 가공소비 감소 원인

최근 들어 양계산물에 대한 소비가 몇 년 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수입량과 국내 양계용 배합사료 생산량을 분석해 보면 오히려 소비량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어 앞뒤가 잘 맞지 않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좀더 분명한 원인 규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전 양계산물의 소비가 감소한 것으로 양계인들이 느끼고 있는 점은 소비가 과거와 같이 연중 고르게 증가세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계절적이나, 국내 경기

흐름에 따라 소비 흐름이 확연히 달라지고 있다는데서 기인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다.

경기여하에 따라 소비자들이 양계산물을 대하는 패턴이 변화된다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도 있다. 경기가 원활하게 돌아가면 씀씀이가 커지는 경향 때문에 자연히 가공상품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나, 경기가 나빠지면 지출이 줄어들어 가공상품보다는 가정소비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이 뚜렷해지는 현상으로 인하여 산물출하 가격은 이에 맞추어 변화되게 마련이다.

실제로 이 같은 현상은 지난해나 금년에도 여러 차례 목격이 되었던 점을 참고로 하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 닭고기나, 계란이 같은

맥락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은 양계인들이 참고로 할 일이 아닌가 보여진다. 정확한 소비통계가 공식적으로 발표된 바는 없으나, 그간의 정황을 종합해 본다면 양계산물의 소비가 이제는 가정소비로 국한되면 출하가격이 그리 좋게 형성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해지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보다 생산자들이 가격 예측이 그만큼 더 어렵게 되어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생산설비가 대폭 확충이 되어 양계산물이야말로 소비자들이 원하는 대로 언제든지 생산이 가능해졌다. 이 결과 소비에 약간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출하가격은 예측을 할 수 없을 만큼 하락하거나 상승하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설명이 설득력을 갖게 한다.

결국 제아무리 입추시 생산과 관련된 통계를 분석하여 정황이 좋은 예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출하당시에 소비가 예상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대 이하의 결과가 나타나게 마련이다. 이런 면을 양계인들이 너무 소홀하게 다루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앞으로는 생산과 관련된 정황 분석도 중요하지만 경제흐름분석을 추가해서 경영하는 것이 효율을 높이는 일이 아닌가 생각된다.

양계산업의 구조조정은 반복된다 시장흐름에 적응이 변수

경제위기 이후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나오는 말 중의 하나가 구조조정이다. 어떤 의미로건 구조조정은 심리적으로 상당한 압박감을 갖게 하는 것은 틀림이 없다고 보여지는데, 적어도 제조업이나 금융 서비스업에

서 적용되어지는 말로만 알았는데, 어느새 우리 양계업계에까지 구조조정이라는 말이 찾아들어 그 의미를 되새겨 보게 한다. 말 그대로 구조를 바꾼다는 뜻은 쉽게 이해가 가지만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에 대해서는 언뜻 말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이다.

흔히 양계업의 구조조정을 이야기 하다보면 결론 없이 막을 내리는 경우를 많이 목격하게 되는데, 우선 양계산업의 문제점을 확실하게 분석해야 채널 가치를 제대로 골라낸다는 점이다. 만일 없어져야 할 가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까치집이 있다고 가정할 때 까치가 그냥 내 집 무시라고 보고만 있겠느냐 하는 물음이다. 필사적으로 반대를 할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양계산업이 앓고 있는 당면현안에 대해 잘 안다하더라도 까치를 설득할 지도력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난제로 꼽히고 있다.

결과적으로 인위적인 조정이란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도 있다는 것으로 냉철히 분석해야 할 것이다. 가장 이상적인 구조조정은 동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앉아 필요에 따라 필요량에 맞는 규모에 의거 자율적으로 생산을 조절하여 과잉공급의 요인을 감소시켜 나가는 일이다. 이 원칙이 지켜지는 데에는 업계 전체의 의사를 집약해야 하지만 결론에 도달하기란 거의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견해 때문에 결국은 구조조정과 관련하여서는 인위적인 조정만이 필요한 것처럼 내비춰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도 있다는 점이다.

양계산물의 생산시설이 소비수준을 초과한 상태가 지속된다는 점 때문에 좀더 양계업계

의 부실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다소 무리가 따르더라도 인위적인 구조조정이 거론되고 있으나, 그간의 흐름을 분석해 본다면 양계인들의 의견이 일치하여 일시적인 수급조절로 부실을 줄이는 데까지는 도달한 적이 몇 차례 있었지만 현재에 접어들어서는 이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들을 하고 있어 일부에서는 정부나 기타 외부의 자금을 투입하여 경영자금이나, 또는 수매비축자금을 투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를 제기하는 상황에까지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즉, 자연적인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일부의 견해는 상태가 자율적으로 호전이 되기까지는 모두가 피해자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소 시장경제원리에는 위배된다 하더라도 생산감축이나 수매비축의 묘를 살려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어느 의견이 옳으냐를 판가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양계업은 시대나, 소비형태의 변화에 따라 이미 구조조정이 이행되어 왔다고 보여지는데, 굳이 여건도 조성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의의가 제기될 뿐이다. 결국 어떤 형태의 구조조정이건 생산자들이 알아서 결정해야 할 과제라 보여진다.

새로운 여건에 적응해야 한다 양계인의 인식전환이 중요

세월이 지나면서 제도나 습관은 같이 변화된다는 사실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만고의 진리라고 보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운 제도나 체계에 대한 무의식 중의 거부반응으로 인하여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면서 가장 강조가 되었던 부분은 바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양계인들의 인식전환이라고 하였다.

기대에 부풀었던 밀레니엄의 시발점, 경진년 한해가 어느덧 저물고 새로운 새해 신사년이 도래하고 있다. 우리 양계인들은 한해를 보내면서 지난날을 되돌아보게 된다. 깊은 자기 성찰과 반성을 통하여 새로운 경영을 하기 위해 노력할 때가 되었다고 보여진다. 양계산업이 변화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쉽게 관찰이 되고 있다. 국내정세도 그렇거니와 세계정세도 매우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는 점이 거론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수입과 수출에 대한 관계가 복잡해지고 있으며, 새로운 상품의 개발과 소비자들의 식생활 흐름이 바뀌는 문제나, 육종의 신기술, 사양관리 기법의 획기적인 개선 내지 개발, 사육방식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들이 계속하여 나타나거나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양계인들의 생각은 크게 변화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심심찮게 거론되어지고 있다. 20년 전의 생각으로 농장을 경영하는 모습까지 보인다는 지적도 있다. 10년, 20년 전에 비해 양계산업과 관련된 사육이나, 소비 여건은 놀라울 만큼 변화가 되었으나 생산에 임하는 양계인들의 사고방식은 바뀌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하는 여운이 남는다. 변화가 되었건, 과거의 습관을 유지하건 중요한 것은 변화되는 시대에 적응이 가능한가로 판단이 되어야 한다. **양계**